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고용주들 5개월만에 일자리 추가 가장 적어... 17만7천개
- CNN Business: 미국 경제 2분기 성장, 예상보다 느렸다

[미국 금융]

- WSJ: 비자, 마스터카드사 수수료 인상 추진
- Bloomberg: 미 '주택 현금 인출 재융자', 2000년 이래 최저치

[교육]

- Bloomberg: 미국 학생들 “소규모 수업 아닌 더 좋은 학교 필요”

[물류]

- WSJ: 운송 성수기 시즌인데 수요 반등은 약해
- WSJ: 미 고용주, 급여 제안에 최대 47% 삭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Finance Yahoo: 미 고용주, 급여 제안에 최대 47% 삭감
- CNN Business: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AI 주식 인기↑
- CNBC: GM, Google “자동차 제조에 AI 활용 모색중”
- Bloomberg: 현대차, 전기차 금속회사에 4억 불 투자
- TechCrunch: 애플, 아이폰 15출시... 7백99불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 177,000 Jobs, Smallest Gain in Five Months

미 고용주들 5개월만에 일자리 추가 가장 적어... 17만7천개

- 8월 민간기업들의 일자리 추가가 전월에 비해 17만7천개로 나타났다고 오늘 수요일 발표된 ADP 와 Stanford Digital Economy Lab의 자료가 밝혔다. 전월이 7월의 경우 상향 조정치로 37만1천개로 나타났다.
- 결국 6월의 증가폭 하락세는 지난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노동 수요가 둔화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레저와 환대 산업 고용이 작년 3월 이라 가장 낮았으나 일자리가 줄어든 업종은 없었다. 큰 증가세는 교육, 의료 서비스, 무역, 운송 부문이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The US economy grew more slowly in the second quarter than previously estimated

미국 경제 2분기 성장, 예상보다 느렸다

-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했다.
- 이는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 수요 둔화에 힘쓰는 연준에게 좋은 신호이다.
- 오늘 수요일 오전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2분기에 2.1% 증가했다. 이는 예상치인 2.4%보다 약간 느린 속도.
- 2분기 경제 성장은 대부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상품 구매 및 수입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Visa, Mastercard Prepare to Raise Credit-Card Fees

비자, 마스터카드사 수수료 인상 추진

-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는 크레딧 카드 거래 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크레딧 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은 각각 오는 10월과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인상분의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에 해당된다.
- 이같은 수수료 인상으로 업주들은 추가로 총 연간 5억2백만불을 더 내는 것으로 컨설팅사인 CMSPI는 추산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Home Cash-Out Refinancing Falls to Lowest Since 2000 After Fed Hikes

미 '주택 현금 인출 재융자', 2000년 이래 최저치

- 미국 주택 소유주가 주택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이른바 '현금 대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는 2분기에 전체 모기지 대출의 17% 미만으로 감소하여 2000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 이같은 수치는 연준이 30년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작년 1분기의 46.1%와 비교된다. 그 당시 3개월 동안에 평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4%로 올해 2분기의 6.95%와 크게 비교된다고 관련 Bankrate.com 데이터는 밝혔다.
-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주택 자산 인출이 목적이었다. 모기지 금리가 낮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던 때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기지 규모를 늘릴 수 있었지만 월 지불액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Bloomberg 기사

[교육]**Bloomberg: US Students Need Better Schools, Not Smaller Classes
미국 학생들 “소규모 수업 아닌 더 좋은 학교 필요”**

- 학급 규모 의무화는 교사 노조가 선호하는 정책이다. 교사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해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규모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만, 성취도 향상은 대체로 저학년에서만 나타난다. 학급 규모 축소는 학생 학습을 개선하는 데 비용 효율성이 가장 낮다는 것.
- 2018년 41개국의 148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수업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읽기 능력 향상에는 미미한 영향을, 수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뉴욕시는 내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최대 학급 규모를 유치원은 20~25명, 1~3학년은 20~32명, 4~8학년은 23명으로 제한되며, 고등학교는 25~34명으로 줄어든다.
- 시 당국은 2028년까지 약 1만 8천 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추가 급여로 연간 19억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물류]**WSJ: Where Peak-Season Shipping Is Headed, In Charts
운송 성수기 시즌인데 수요 반등은 약해**

-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운송 시기가 일반적으로 성수기다. 소매업체들이 의류, 전자제품, 연말연시 장식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화물 운송업체들은 급등하는 수요에 수익을 높이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팬데믹 때 쌓인 재고를 계속 소진하고 물류회사 입장에서 물동량이 줄어든 상태다.
- 따라서 항구에 도착해 유통센터와 매장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올해 내내 작년 수준 보다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 전국소매연합(NRF)은 예측하는데 올 9월과 10월에 수입량이 소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WSJ: Chatbo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ere Your Shipments Are

챗봇이 화물 위치 파악 시도한다

- 물류 회사들이 점차 다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중이고 잠재적인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 위치 파악 등 상품 운송에 있어서 고객에 실제 만족감을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 화물 중개업체 RXO, 트럭킹 업체 XPO, 물류 기술 제공업체 Phlo Systems, 해운업체 DFDS는 배송 추적, 화물 예약, 수입 신고 등의 작업 자동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다.
-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나무고,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고, 사람과 비슷한 음성으로 질문에 응답해 오랜 시간 걸리던 작업을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 물류 회사들은 향후에는 예측, 조달, 재고 관리 및 배송 결정을 개선하는데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다면서 고객 지원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FinanceYahoo: Employers have had enough and are starting to cut salary offers by as much as 47%, according to analysis of 20,000 job postings 미 고용주, 급여 제안에 최대 47% 삭감

- 지난 수년동안 신입직원의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이제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 온라인 구직 사이트인 ZipRecruiter가 온라인 구입 광고에 올라가 있는 급여의 작년 대비 변화를 비교했다. (2만개 일자리 분석). 올해들어서는 평균 급여가 감소한 구직 광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년에는 2021년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한 광고가 4분의 3이었다.
- 그런데 올해 7월에 기업의 48%가 일부 직무에 대해 급여를 삭감했다고 응답했다.

Finance Yahoo 기사

CNN Business: Rising labor costs are making AI stocks even more attractive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AI 주식 인기↑

- 미국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234%, 알파벳은 53%, MS는 3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해 약 33% 상승했다.
- AI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를 첨단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이는 인건비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분기 S&P 500 기업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 기업이 AI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해당 직원의 임금을 대체하면, S&P 500 주식 중간값의 수익이 18% 더 증가할 수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GM, Google exploring ways to use AI across automaker's business

GM, Google “자동차 제조에 AI 활용 모색중”

- GM과 구글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이는 2022년 출시된 GM의 온스타 대화형 가상 비서(IVA)에 대한 이전의 작업 확장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IVA 시스템은 대화형 AI 기술을 사용해 온스타 사용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내비게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생성 AI는 차량 내부 외에도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GM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담당 부사장이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Hyundai to Invest \$400 Million for Stake in an EV Metal Company

현대차, 전기차 금속회사에 4억 불 투자

- 현대차가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소인 고려아연의 지분 5%를 매입할 예정이다.
- 이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현대차와 고려아연은 이번주 수요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금속을 조달, 가공, 재활용하는 ‘니켈 가치 사슬’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 현대차는 파트너십을 통해 2031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의 50%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 고려아연과 함께 구축한 공급망은 중요 광물 소싱에 대한 유럽의 요구 사항과 기타 ESG 규칙을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Apple will announce the iPhone 15 on September 12

애플, 아이폰 15출시... 7백99불

- 애플이 iPhone 15 출시 행사를 9월 12일에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애플을 초청장을 보냈다. 이벤트는 본사가 있는 Cupertino 소재 애플 파크다.
- 애플은 새 기기의 가격이나 세부 사항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후에 기본 모델의 가격이 기존 iPhone 가격보다 약간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hone 15기본 모델의 가격은 799달러로 작년에 출시된 버전 14와 동일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고용시장 과열 진정 기미...금리인상 랠리 한숨 돌리나

전문가 "연준이 환영할 데이터"...추가 지표 참고 후 금리 결정 전망

미국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랠리도 한숨 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해왔는데 고용시장 냉각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난달 구인 규모가 2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